

책 보존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

최근의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장서 중 1875년에서 1960년 사이에 간행된 도서 2백만권 가운데 1백만권 이상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책장이 누렇게 변하고 습기가 없어져 바스라지는 현상이 상당 정도로 진행중이라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종이의 산화현상이다. 이같은 사정은 선진 각국에도 마찬가지로 책의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과 함께 중성 및 알칼리성 종이를 도 사용자로 사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산성지로 출판된 책에 대해서는 장기보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기도 한다. 다음에 책 보존을 위해 기울이는 세계 각국 도서관의 노력을 소개한다. 출전은 출판연구소가 펴낸 「출판연구」 제2호(1990)에 게재된 로버트 워닉의 「책의 장기보존방안」.

책 보존기술에 있어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유럽의 어느 대형도서관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파리 서남쪽 사블레 쉬르 사르트에 있는 국립도서관의 보존센터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붓, 칼, 잉크와 풀을 써서 능숙한 솜씨로 망가진 책장과 장정을 고치고 있었다. 옛 기술과 현대 기술을 모두 동원하여 구겨지고 벌레먹은 종이를 인쇄기에서 갓 나온 것같이 깔끔한 모양으로 재생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기술자들은 한 사람당 900시간의 작업을 해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원본을 깔끔히 복원했다.

그리고 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책을 튼튼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많은 일반서적들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얇고 투명한 폴리머필름 2장 사이에 책장이나 종이를 끼워넣고 압연기로 눌러 붙이는 방법이다. 사블레 쉬르 사르트의 작업실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기에 앞서 서적의 산을 제거한다. 산을 제거하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처음 개발되었는데, 프랑스문서보존연구소가 국립도서관에서 사용하려고 도입한 것이다. 한번에 50권 가량의 책을 오븐에 넣고 구워 습기를 제거한다. 그런 다음에 메톡시 메틸 마그네슘 탄산염의 용액이 담긴 통에 그 책들을 담근다. 여기서 종이에 이미 들어있던 산이 중화되고, 알칼리성 염기가 형성되어 다시 산이 축적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장 마리 아르누가 이 작업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는 머지않아 이 방법으로 하루에 최고 1000권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의회도서관은 보다 더 야심적인 계획을 세웠다. 한꺼번에 수천권의 책을 진공실에 넣고 펌프로 공기와 습기를 대부분 뽑아낸 다음 순수한 질소 가스로 그 방을 씻어낸다. 그 다음에 디에틸 아연(DEZ) 가스를 가득 채우면 산성이 중화되고 이 가스가 책에 남아 있는 습기와 반응하여 산화아연의 얇은 층이 생긴다. 이 층이 종이 가 다시 산화하여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수증기를 넣어 책의 습도와 유연성을 되살린다. 55시간이 걸리는 이 과정을 거친 건강한 책들은 서가로 되돌아간다. 1992년 말쯤에는 1년에 100만권씩 서적의 산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의회도서관은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계획이다.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는 우선 궁여지책으로 책을 해체하여 일일이 한장한장씩 알카

리용액에 담그는 방법을 써오다가 최근에는 책을 뜯지 않고도 분무(스프레이)로 약품처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권당 1~2백 파운드(약 26만원)라는 막대한 경비와 함께 1년에 고작 천권 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 책을 화학물질로 처리하고 감마선을 쬐어 산에 대한 종이의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전보다 10분의 1밖에 경비가 안 들고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이런 처리를 하는 공장의 건설에 약 3백만 파운드(약 39억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의 보존 책임자인 게르하르트 바니크는 신문을 화학약품에 담긴 뒤에 60시간 동안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1주일에 10만 페이지씩 처리하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도서관의 보존전문가들은 책장을 두 쪽으로 가르고, 그 사이에 책장을 강화해 주는 얇은 종이를 삽입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어느 보존기술이나 모두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들, 다시 말하면 독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책을 통해 과거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우리들도 책을 통해 미래를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보존책임자인 장 마리 아르누의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은 도서관의 서가에서 책을 가져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책을 서가에 다시 갖다 놓아야 한다.

이 간단한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책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들의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151호 / 1994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민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라즈니시의 달마어족 강의/투시화울펜

달마

“당신의 팔을 잘라 던져 주십시오.”

“달마가 중국 사람이란지요?”

달마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들을 남겼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달마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다. 달마는 인도 사람이었다. 1,400년 전의 인도 사람 달마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주목받는가?

“혜가는 왜 팔을 잘라 던졌나?”

중국 사람 혜가는 달마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팔 하나를 잘라 달마 앞에 던졌다. 그는 목까지 잘라 던지려고 했다. 그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그리고 목숨보다도 소중한 진리를 다름 아닌 달마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달마가 설파한 충격의 진리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팔 하나와 바뀌도 아깝지 않을 책”

놀라운 해박함, 예리한 통찰력, 번뜩이는 기지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강의해 온 현대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그가 흥미로운 일화들을 곁들여 20세기의 말로 풀어낸 <달마>!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읽다 보면 달마의 진면목이 선명해지고, 팔 하나와 바뀌도 아깝지 않을, ‘나 자신’에 대한 커다란 발견과 마주친다.



■ 616면/값 12,000원/서점에 있습니다.